

# 『天理本狂言六義』에 나타나는 추량표현

- 조동사 「べし」를 중심으로 -

이수향\*

〈 Abstract 〉

## Conjectural expressions in “Tenribon Kyougenrikugi”:

Focusing on the auxiliary verb べし

This study discusses usage patterns of べし in terms of its conjugational forms and semantic usages observed in “Tenribon Kyougenrikugi”, the late Middle Ages colloquial data, in order to clarify the process of change of べし. Results of the discussion are as follows.

First, as for the conjugational forms, the Shuushikei べし shows the highest appearance followed by the Rentaikei べき and further by the Mizenkei べから. The Renyoukei べく and the Izenkei べけれ are not found. As the time passed, the frequency of the use of べし decreased, whereas べき increased. The increased use of べき was in particular deemed to be caused by the ‘unification of the Shuushikei and Rentaikei’, which began occurring from the late Middle Age. The current study also found two cases where べき was used as Shuushikei instead of べし.

Second, in terms of semantic usages, it was used in the order of [Suitability · Suggestion · Order] - [Guess], [Naturalness · Necessity] - [Will] - [Possibility] - [Prohibition]. It is thought that [Suitability · Suggestion · Order] was used frequently for the reason that the script did not clearly differentiate dialogues and narratives, and it also described actions of performers and stage productions together within the overall scenario.

Third, the main semantic usage of べからず was [Prohibition], and the semantic meaning of [Prohibition] was manifested only by べからず. From this, it is deemed that the limited use of べからず for [Prohibition] continued to Modern Japanese while other meanings of べからず declined since the Middle Ages.

Field : History of Japanese language

Keywords : Conjectural auxiliary, The late middle ages, Tenribon Kyougenrikugi, Conjugation form, Meaning

## 1. 머리말

본 논문은 현대일본어에서 논리적이거나 관용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는 「べし」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중세후기의 자료에서의 사용양상을 고찰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전 일본어 문법에서 추량의 의미를 담당하는 형식은 8종의 조동사(む, むず, らむ, けむ, めり, まし, らし, べ

\* 가천대학교 조교수, 일본어사

し」이었으나 현대 일본어에 남아있는 조동사는 「む, らし, べし」의 3종뿐이다.

이들은 표기형태와 의미용법의 변화를 거치게 되는데, 현대 일본어에 남아있는 조동사의 표기형태에 대해 살펴보면, 「む」는 「う・よう」로 「らし」는 「らしい」로 「べし」는 주로 「べく」 「べき」 「べからず」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의미용법도 하나의 조동사가 〈추량〉 〈의지·희망〉 〈권유·기대〉 〈가정·완곡〉 〈당연·의무〉 〈가능〉 등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냈으나 중세 전기 이후 축소되는 양상을 띠게 된다. 따라서 현대일본어에 남아있는 조동사를 중심으로 이러한 변화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대별로 자료에 나타나는 사용양상을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표를 가지고 추량조동사의 통시적 연구의 일환으로 본 논문에서는 현대 일본어에서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조동사 「べし」를 중심으로 중세후기의 자료 『天理本狂言六義』에 나타나는 사용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중세후기의 자료를 고찰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고정적인 사용양상을 보이며 언어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중세전기와는 달리 중세후기는 구어자료의 등장으로 인해 어휘와 어법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이므로 「べし」의 다양한 의미를 파악하기에 용이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べし」의 사용양상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의 언어 사용실태가 반영되어 있는 구어자료를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따라서 대표적인 구어자료인 교겐 자료 중에서 『天理本狂言六義』에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하기로 한다.

『天理本狂言六義』의 정식 명칭은 天理図書館蔵 『狂言六義』로서, 통칭 덴리본(天理本)으로 불리고 있다. 현존하는 이즈미류(和泉流) 最古의 교겐 대본이며, 서사 년대는 정확하지 않으나, 대략 1624년 -1644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겐의 역사 및 연구에 있어 빼뜨릴 수 없는 기본적인 교겐 대본<sup>2)</sup>이며, 중세 무로마치(室町) 시대부터 근세 에도(江戸)시대 초기의 교겐의 실태와 당시의 일본어의 실태를 알 수 있는 구어자료이므로 「べし」의 다양한 표기형태 및 의미용법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 2. 「べし」의 의미 분류 기준 및 선행연구검토

현대일본어에서 「べし」의 기본의미는 [당연] 이고 문맥에 따라 [의무·명령·금지]로 사용되어, 관용적인 문구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중세 시대 이후의 문장에서는 이러한 의미이외에 [추량], [의지], [적당·권유], [가능] 등 다양한 의미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べし」의 의미를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연구서 및 사전마다 기술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략 5가지에서 9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べし」에 관한 종래의 연구도 이와 같은 흐름에서 주로 「べし」의 문맥상의 의미, 용법에 대한 기술과 분류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べし」의 의미에 대해 桜井光昭(1969)는 「何らかの根拠によって当然・必然と推量する意味を表す。…推量とか可能とかいっても、その本義をいつも念頭におくべきである。」라고 기술하고 (1)추

1) 「らし」는 「う」, 「べし」와는 계통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현대 일본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らしい」의 어원이 되는 「らし」는 나라(奈良)·헤이안(平安)시대부터 사용되었던 「らし」가 아닌 근세시대에 새롭게 생겨난 형태이기 때문이다.

2) 永井 猛(1994) 「天理本狂言六義のこと」 『中世の文学』 附録 三弥井書店 p.1

량 (2)의지 (3)당연·필연 (4)가능 (5)명령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石田肇(1966)는 인칭과 인격을 대상으로 한 판단을 기준으로 하여 (1)의지 (2)명령 (3)가능 (4)의무 (5)당연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日本語文法大辞典』에서는 (1)추량 (2)예정 (3) 당연·필연 (4)적당 (5)결의 (6)권유·명령 (7)가능으로 분류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日本語文法大辞典』에 기술되어 있는 「べし」의 의미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①推量：そのことが実現すること、それがそういう状態であることは間違いないと判断し推量する意を表す。主に第三人称の動作・状態についていうことが多い。
- ②予定：そうするようにもともと定められているという意味を表す。体言へ続く連体形を用いることが多い。
- ③当然・必然：道理・経緯・状況などから見てそうするのが当然でそれ以外は考えられないという意味を表す。
- ④適当：道理・状況などからそうするのが適当・妥当と判断する意を表す。
- ⑤決意：道理や成り行きから、そうしようと決意する意を表す。第一人称の動作について用いる。
- ⑥勧誘・命令：理由・根拠に基づいて、そうすることを強く勧めたり命令したりする意を表す。第二人称の動作について用いる。否定の「べからず」は禁止を表す。
- ⑦可能：そうすることが可能である意を表す。そのことの実現することが確実であるとの判断を表すところから、可能の意を表すのにも用いられるのである。「べからず」は不可能の意を表し、漢文の「不可」の訓になる。

또한 『日本国語大辞典』 제 2판에서는 (1)의지 (2)권유·명령 (3)가능 (4)당연 (5)적당 (6)추정 (7)예상 (8)예정 (9)행위의 목적(현대의 용법)으로 분류하고 있어 (9)의 현대의 용법을 제외하면 8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森田良行(2007)도 『日本国語大辞典』의 분류 (6)번까지는 동일하나 (7)의무 (8)금지 (9)필요를 추가하여 9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의 분류기준을 살펴보면 『日本語文法大辞典』과 『日本国語大辞典』은 [권유]와 [명령]을 같은 범주로 분류하고 있으며, 『大辞林』 제 2판에서는 (1)추량 (2)당연 (3)의지 (4)적당·권유 (5)명령 (6)가능으로 분류하고 있어, [적당]과 [권유]를 같은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적당], [권유], [명령]의 의미구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연구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되는 이유는 분류기준이 문맥상 파악되는 의미가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이며, 비슷한 의미를 어떠한 관점에서 분류하느냐에 따라 의미 분류의 양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秋本守英(2001)는 「べし」의 의미는 사전에서 제시한 분류보다 더 많게도 적게도 분류할 수 있으며 이것은 「べし」의 의미에 대한 異說이 아니라, 구체적인 용법의 정리방법, 분류의 차이일 뿐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용례의 의미에 대해서도 동요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며, [권유·명령]의 의미가 [당연·필연]으로도 [적당]으로도 해석되는 용례를 제시하고 있다<sup>3)</sup>.

「べし」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 堀口和吉(1979)는 의미끼리의 관련성에 대한 기술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하며, 앞에 접속하는 동사의 성격에 따라 크게 3분류한 후

3) 例えば⑥勧誘・命令の例として揚げた「家の作やうは夏をむねとすべし」(徒然・55)は③当然・必然としても④適当としても考えることができる。「夏をむねと」して家を作るのが理にかなった当然のことであり、そうするのが適当であるから、そうするよう勧めるのである。

의미를 분류하였다. (1)앞에 접속하는 동사를 「자연의 움직임」으로 파악한 경우-양상, 사정, 추량, (2)앞에 접속하는 동사를 「의지적인 움직임」으로 파악한 경우-적합, 가능, (3)앞에 접속하는 동사를 「당위의 움직임」으로 파악한 경우-적당, 의무, 명령, 결의로 분류하였다.

堀口和吉(1979)의 분류는 문맥에 의존하여 분류하는 방법보다는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양상] [사정] [적합] 등의 용어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며, 다른 분류에서는 보이지 않는 다소 생소한 개념으로서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高山良行(2002)의 분류는 보류로 분류된 용례수가 너무 많아 일반적인 의미 분류 기준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森田良行(2007)의 분류 역시 [필요]와 [의무] 모두 [당연·필연]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분류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日本語文法大辞典』과 『日本国語大辞典』 『大辞林』의 분류기준을 일부 수정하여 (1)추량 (2)당연·필연 (3)적당·권유·명령 (4)의지 (5)금지 (6)가능으로 분류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日本国語大辞典』의 [추정]과 [예상]은 의미를 살펴보면<sup>4)</sup> [추량]으로 분류시킬 수 있으며, 『日本語文法大辞典』에서 부정의 「べからず」는 [금지]를 나타낸다고 하는데, 용례분석에서도 [금지]의 용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금지]를 별도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日本語文法大辞典』과 『日本国語大辞典』에서는 [예정]의 의미가 분류되어 있는데, 『日本国語大辞典』에 나타난 [예정]의 의미를 보면, 〈近い将来に事態の実現を予想する。…する予定である。…であることになっている。〉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넓은 의미의 [의지]로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의지]의 의미에 포함시켰다. 또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적당][권유][명령]의 의미는 구별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같은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아울러 「べし」에 관한 통시적 연구는 그 수가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sup>5)</sup>, 민병찬(2012)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確かに文語の世界で「べし」は、口語のそれと比べてより多様な意味・用法を有していたとされている。そういう意味で、「べし」はその意味・用法が〈縮小〉ないし〈限定〉への一途を辿ってきたとも言えよう。要するに通じ的看着て、「べし」の意味・用法に大きな変化があったわけであるが、その変遷過程に関しては必ずしも十分な議論がなされてきているとは思えない。現代語にまで「生き残れた」ことや変化の理由等についても議論の余地があると思う。

「ヘボン・ブラウン訳『馬可伝』における〈べし〉について」 pp.27:5-28:3

또한 중세후기의 여러 가지 구어자료 중에서도 교겐 자료를 고찰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교겐에 사용된 언어가 가미가타(上方)의 일상어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어자료로서 가치가 높기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교겐에 대한 연구 및, 교겐을 분석 대상으로 한 연구도 다수 존

4) [추정]과 [예상]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추정]:目の届かない所で、現在進んでいる事態を推定的に推定する。…しているにちがいない。…しているはずだ。[예상]:近い将来、ある事態がほぼ確実に起ることを予想する。きっと…だろう。…するにちがいない。

5) 近藤泰弘(1973)「推量表現の変遷」,『言語』 22-2, 大修館, pp.48-60, 山口堯二(2018)「〈べし〉の通時的変化」 『京都語文』 4, 佛敎大学国語国文学会 pp.186-205, 민병찬(2012)「ヘボン・ブラウン訳『馬可伝』における〈べし〉について」 『日本學報』 92 韓国日本学会 pp.27-38, 민병찬(2014)「〈べし〉의 한국어번역에 관한 일고찰-〈べからず〉에 대한 대역어를 중심으로-」 『日本學報』 99 韓国日本学会 pp.47-59, 이수향(2017) 「중세후기자료에 나타나는 추량조동사(べし)의 사용양상」 『比較日本学』 40 日本國際比較研究所 pp.357-374 등이 있다.

재한다. 그러나 교겐 자료에 나타나는 추량표현을 다루고 있는 연구는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蜂谷清人(1987), 李淑姬(2006), 이수향(2015)(2019)정도로 그 수가 충분치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天理本狂言六義』에 나타난 「べし」의 사용양상을 비교, 고찰한 본 논문은 교겐에 나타난 추량표현 및 중세후기 자료에 나타나는 추량조동사의 사용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 3. 연구방법

분석텍스트로 사용한 자료는 『교겐리쿠기젠추(狂言六義全注)』이다. 『狂言六義全注』는 비슷한 시기에 성립된 완벽한 대본의 형식을 구비한 『오쿠라도라아키라본교겐(大蔵虎明本狂言)』과 달리 줄거리적 요소가 농후한 것이 특징이다. 구성은 상권(120곡) 하권(102곡)권 발초(拔書)<sup>6)</sup>(5곡)으로, 총 227곡이 수록되어 있다. 연구방법은 『狂言六義全注』에 나타나는 「べし」를 활용형별로 분류한 후 각각의 의미용법을 분석하여 「べし」의 전체적인 특징을 고찰하였다.

## 4. 『天理本狂言六義』에 나타나는 「べし」의 사용양상

### 4.1 「べし」의 활용형별 분포

『天理本狂言六義』에 나타난 「べし」의 전체용례는 265예였다. 활용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종지형인 「べし」가 220예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연체형 「べき」가 32예 나타났다.

활용형별 사용빈도를 정리하면 <표1> 과 같다.

<표1> 天理本狂言六義에 나타나는 「べし」의 활용형

	べし	べき	べから	べけれ	べく	계
용례수	220	32(3)	10	2	1	265
사용율	83	12.1	3.8	0.7	0.4	100

( )의 수치는 「べき」의 전체 용례 중 「べい」의 용례수를 의미함.

구체적인 용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又飲ふで、とてもの事に、ま一杯飲まふと云て飲む、此内、面白く仕様あるべし、いかやう樽の尻が上がると云う

<下90 木六駄 726:7>

(2) 不思議さよと思ひ、雲透に刀を見てあれば、鮫鞘卷の鞘づまり、栗形もげて、鞘ながらあり、口

6) 서사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문구(語り), 노랫말(謡い物), 와카(和歌), 렌가(連歌) 등을 따로 뽑아내어 모은 것이다.

にくわへて抜くべきを、若氣の致す所にや、冠の板に押し当てて、ちやうちやうど打ければ、  
 〈上4(抜書34) 文蔵 18:12〉

(3)此やうな物も、取りべい時、取らねば、後には取られぬ物じゃと云  
 〈上74 折紙聳 226:9〉

(4)いでいで此次にハ楽しく成やう語りて聞かせん朝起き疾うして慈悲あるべし夫婦の中に腹立つ  
べからず  
 〈上79(抜書23) 福の神 247:6〉

(5)此山には、三千人の衆徒あれば、それを守らんずる天部をこそ安置申べけれと有しかば、其時、  
 此大黒、大きに怒りをなし、いでさらば、奇特を見せんとて、たちまち、三面六臂と現ず、是こそ  
 三面の大黒の謂われなれ、なんぼう奇特なる事にては候はぬか  
 〈上33(抜書 12)夷大黒 95:6〉

(6)我を進じて月詣仏供を供えて足手を運べば我ため一の旦那なりしかるべくは閻魔法王此罪人を九  
 品の浄土へやりてたべそれを背かば地獄の釜をも割るべし  
 〈上95(抜書37) 八尾 303:2〉

(7)水は逆様に流る物か、嫡々にててましませば、惟喬こそ御世を御持ちあるべけれ、惟仁の御位に  
 置き給わん事、思ひも寄らぬ御沙汰とあり、されども御勝負あつて、その勝ち負けに依つて、御  
世定まるべし《き》となり、  
 〈上66(抜書33) 横座 197:2〉

(1)은 동사 「仕様ある」에 종지형 「べし」가 접속한 형태이다. (2)는 동사 「抜く」에 연체형 「べき」가 접속된 형태이다. 「べから」의 용례가 전부 「べからず」의 형태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통해, 「べから」는 「べからず」로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은 「べき」가 이음편화한 「べい」의 용례이다. 동사 「取る」의 연용형에 「べい」가 접속한 형태로서, 「取るべい」의 오기라고 각주에 표기되어 있다. (4)는 동사 「腹立つ」에 미연형 「べから」가 접속하고 부정의 조동사 「ず」가 접속한 형태이다. (5)는 동사 「申す」에 이연형 「べけれ」가 접속한 형태이다. (6)은 동사 「然る」에 연용형 「べく」와 계조사 「は」가 접속된 형태이다. (7)은 「べし」옆에 「き」라고 기록하여 「べき」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본래는 종지형인 「べし」가 되어야하나 연체형종지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본문의 주석에 기록되어 있다. 분석결과 이와 같이 「べき」가 「べし」를 대신하여 종지형의 역할을 하고 있는 예가 2예 발견되었는데, 이것을 통해 중세후기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종지·연체형의 합일화〉현상을 엿볼 수 있었으며, 이것이 현대일본어에서 「べし」보다 「べき·べきだ」가 일반화되는 원인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향후에는 중세후기 자료의 양적조사를 통해 〈종지·연체형의 합일화〉현상의 전체적인 사용실태 경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상 「べし」의 활용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현대 일본어에서 「べし」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べき」「べからず」가 사용되고 있는 것과 달리 중세후기에는 「べし」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소수이기는 하나 다양한 활용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4.2 「べし」의 의미용법

활용형별 「べし」의 의미용법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적당·권유·명령]이 가장 많은 용례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추량], [당연·필연]-[의지]-[가능]-[금지]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중세 헤이안(平安)시대에 이미 「べからず」가 [금지]로 사용된 예가 보인다고 하였는데<sup>7)</sup>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べからず」 10예 중 [금지]가 6예로 나타나, [금지]의 의미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표2>와 같다.

<표 2> 天理本狂言六義에 나타나는 「べし」의 의미용법

활용형	적당·권유·명령	추량	당연·필연	의지	금지	가능	계
べし	169	17	13	20		1	220
べき(べい)	1	8	12(2)	4		7(1)	32
べからず		3	1		6		10
べけれ			1	1			2
べく						1	1
합계	170	28	27	25	6	9	265

( )의 수치는 「べき」의 전체 용례 중 「べい」의 용례수를 의미함.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 祈りの内、茸切戸より出て、あそこ爰へ二三人程出る。肝を潰いて又生えたあそこなが松茸さうな又爰へ椎茸が生へたなど、色々面白く有べし

<下98 茸 752:8>

(9) 行、常のごとく鎌倉に着いて所柄の面白い事を云て、是は寿福寺じゃと云て、鐘を見つけて鐘をほめて撞くべし

<下27 鐘の音 493:10>

(10) 葛城や、人目をつつむ神だにも夜るは現れたまふならひぞ  
岩橋の末通るべき中ならば、何に対面、いやといふべき

<下94 岩橋 740:6>

(11) 見目の悪きは生まれつき一度去りたる中なれば何に帰り会ふべきぞ

<上82(抜書28)法師母 255:9>

(12) あら物々しわ男よ、あら物々しわ男よ、多勢に一人が吐ふべきかあら面憎や

<上108(抜書17)鬚矢倉 351:6>

(13) 是は諸国一見の者でござる、我いまだ都を見物致さぬ此度思い立ち都へ上ると云シカジカ参るほ

7) 此島正年(1973) 『国語助動詞の研究 体系と歴史』 桜楓社 pp.334-335

どにほどなふ今日の日も暮れて御ざる、あれなる在所へ参り宿を借らばやと存ると云て一遍廻る、や、是に、高札がある、何々、來の者に、宿を貸すべからず、是はいなか事、はや日の暮れて、先へも行かれぬ、

〈上75 地藏舞 229:7〉

(14)惣じて打身といふ事は、川のものにては、鯉、海の物には 鯛ならではあるべからず

〈下24(拔書125)鱸包丁 486:10〉

(8)은 「べし」가 [적당·권유·명령]으로 사용된 예이다. 어느 날 마당에 사람 크기가 되는 큰 버섯이 생기자 주인은 버섯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 야마부시(山伏)를 찾아간다. 야마부시는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며 기도를 하는데 버섯이 없어지기는커녕 점점 더 늘어나 곤란한 상황이 이어진다. 문장의 의미를 살펴보면 「기도를 하는 동안에 버섯이 쪽문에서 나와 저기에 2,3명(버섯이 사람 크기이므로) 정도 나온다. 몹시 놀라, 또 나왔다. 저쪽은 송이버섯 같다, 또 저기에 표고버섯이 나왔다 등등, 여러 가지로 재미있게 해야한다.」가 된다.

(9)는 「べし」의 용례로서 [당연·필연]의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아들의 성인식을 위하여 금이 필요했던 주인이 하인에게 금값(金の値)을 묻고 오라는 심부름을 시키는데 이를 잘못 알아듣고 하인은 절의 종소리(鐘の音)를 들으러 가는 내용이다. 「간다. 여느 때처럼 가마쿠라(鎌倉)에 도착해서 장소가 장소인 만큼 재밌는 말을 하고, 이것은 주후쿠지(寿福寺)가 아니냐! 라고 말하고 종을 발견한 후 종을 칭찬하고 처야한다.」로서 배우에게 지시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10)는 「べき」가 [추량]의 의미로 사용된 예이다. 한 남자가 중매로 장가를 가게 되었는데 한동안 여자는 고소데를 둘러싼 채로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서 걱정을 한다. 그래서 중매쟁이를 찾아갔더니 와키를 읊어서 마음을 열어보라고 알려준다. 예문은 집에 돌아온 남자가 와키를 읊어주자 여자가 답가를 하는 장면이다. 「남자-얼굴이 흉하여 남의 눈을 피하는 가쓰라기(葛城)의 신조차도 밤에는 모습을 나타내는 법입니다. 여자-한 평생 부부로 함께할 듯 한 사이라면 어찌 얼굴을 마주하는 것을 꺼리겠습니까?」라는 뜻으로 파악된다.

(11)은 「べ키」가 [의지]의 의미로 사용된 예이다. 술주정이 심한 남편이 아내를 내쫓아버리는데, 아이가 엄마를 찾으므로 술에서 깬 남편은 만신창이의 몸으로 시내를 헤매다가 친정에 돌아가는 도중인 아내를 만나, 다시 원래의 관계로 돌아가는 내용이다. 문장의 의미는 「얼굴이 못생긴 것은 가지고 태어난 것을...한번 헤어진 사이인데 어떻게 돌아가서 만나겠습니까?」라는 뜻으로서 [의지]의 의미로 볼 수 있다.

(12)는 「べ키」가 [가능]의 의미로 나타난 예이다. 멋진 수영덕분에 축제 때 큰 역할을 맡게 된 남자가 기분이 좋아서 행사준비를 아내와 상의하니 아내는 시간이 촉박하여 준비 할 수 없다고 한다. 남편이 자기 말을 무시한다며 아내를 때리자 아내는 동네의 다른 부인들과 함께 온갖 무기를 들고 남편에게 쳐들어온다. 예문은 여자들이 물려온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하는 말로, 「아아, 대단하구나. 이놈아, 많은 사람을 혼자서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아, 밉살스러운놈.」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13)은 「べからず」가 [금지]로 사용된 예이다.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는 교토의 한 마을에 승려가 찾아와 숙소를 찾는 중에 팻말에 적힌 글을 읽는 장면이다. 문장의 의미를 살펴보면, 「나는 포교와 수행을 위하여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직 교토 주변을 구경한 적이 없기에 이참에 마음

먹고 상경하였습니다. 견다보니 벌써 해가 저물었구나. 저쪽 마을로 가서 숙소를 빌려야겠군. 이라고 말하고 무대를 한 바퀴 돈다. 야, 여기에 팻말이 있군. 어디어디, 여행자에게 숙소를 빌려주면 안 된다. 이걸 어찌면 좋담. 이미 날은 저물어 더 갈수도 없네.»의 의미로서 [금지]로 해석할 수 있다.

(14)는 「べからず」가 [당연·필연]의 의미로 사용된 예이다. 조키는 숙부에게 잉어의 조달을 부탁 받았으나 잉어를 구하지 못해 수달에게 잡아먹혔다고 거짓 변명을 한다. 숙부가 이것을 알아채고 조카를 골려줄 생각으로 농어를 먹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요리법만 길게 이야기한 후 결국 아무것도 대접하지 않고 내쫓는다는 내용이다. 문장을 해석하면 「원래 회라고 하면 민물 물고기는 잉어, 바닷물고기는 도미가 아니면 안 된다.」가 된다.

이상 「べし」의 의미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분석결과를 통해 「べし」의 의미는 다양하지만 『天理本狂言六義』에서 나타나는 주된 용법은 [적당·권유·명령]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것은 줄거리적인 요소가 농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天理本狂言六義』의 특징이라고 판단되는데, 대본의 형식이 대화문과 지문이 명확히 구별되어 있지 않으며, 전체적인 줄거리 속에서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무대장치를 지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우들의 행동을 지시하는 [적당·권유·명령]의 의미용법이 다수 나타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것은 비슷한 시기에 서사된 『大蔵虎明本狂言』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大蔵虎明本狂言』은 거의 완벽한 대본형식을 갖추고 있어,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에 대한 기술이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大蔵虎明本狂言』의 분석결과<sup>8)</sup>에서도 배우의 행동을 지시하는 지문에서 [적당·권유·명령]의 의미용법이 많이 나타났다. 아울러 「べからず」는 대부분 [금지]의 의미로 사용되고, [금지]의 의미는 「べからず」에서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중세이후 [금지]의 용법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べからず」가 [금지]의 용법에 한정되어 쓰이다가 현대일본어에도 계승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 5. 맺음말

본 논문은 「べし」가 다른 추량조동사와 마찬가지로 시대적 변천을 통해 현대일본어에서 「べき」, 「べく」, 「べからず」 등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바, 「べし」의 변천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서 중세후기 구어자료인 『天理本狂言六義』에 나타난 「べし」의 사용양상을 활용형과 의미용법의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다. 고찰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활용형은 종지형인 「べし」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연체형 「べき」, 미연형 「べから」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용형 「べく」와 이연형 「べけれ」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후대로 내려오면서 사용빈도가 높았던 「べし」가 감소하고 「べく」와 「べき」의 사용이 증가하는 것은 흥미 깊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べき」의 사용이 증가하는 이유는 중세후기부터 나타나는 <종지·연체형의 합일화> 현상에 의한 결과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본고의 조사 결과에서도 「べき」가 「べし」를 대신하여 종지형의 쓰임으로 나타난 것이 2예 발견되었다. 향후 「べき」의 종지형과 연체형의 사용양상에 대한 중세후기의 추가적인 자료 분석을 통하여, <종지·연

8) 이수향(2017) 「중세후기 자료에 나타나는 추량조동사 「べし」의 사용양상-구어와 문어자료의 비교를 통하여-」 『比較日本文学』 40輯 漢陽大學校 日本學國際比較研究所 pp.357-374

체형의 합일화)현상의 전체적인 사용실태 경향 및 어느 시기부터 「べき」의 사용이 증가하는 지에 대하여 상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의미용법은 [적당·권유·명령]- [추량], [당연·필연]-[의지]-[가능]-[금지]의 순서로 나타났다. [적당·권유·명령]의 의미가 많이 사용된 것은 대화문과 지문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고 전체적인 줄거리 속에서 등장인물의 동작이나 무대연출을 지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대본의 성격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이는 비슷한 시기의 자료인 『大蔵虎明本狂言』에서도 배우들의 동작을 지시하는 지문에서 [적당·권유·명령]의 사용빈도가 높았던 결과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금지]의 의미용법은 「べからず」에서만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 「べからず」의 의미에 [추량]과 [당연·필연]도 발견되었으나, 그 수는 소수였다. 중세이후 점차 「べからず」의 다른 의미는 쇠퇴하고 주로 [금지]의 용법에 한정되어 쓰이다가 현대일본어에 「금지」만 남게 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상 중세후기 교겐 자료에 나타난 추량조동사 중 「べし」의 특징을 고찰하였는데, 본 연구결과는 「べし」를 포함한 추량조동사의 변천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향후에는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비슷한 시기의 구어·문어자료와의 비교 및 다른 시기 자료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べし」의 변화상을 면밀히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여러 교겐 저본과의 비교를 통한 양적분석을 확대하여 교겐에 사용된 「べし」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민병찬(2012) 「ヘボン・ブラウン訳『馬可伝』における〈べし〉について」 『日本學報』 92 韓国日本学会 pp.27-38
- \_\_\_\_\_ (2014) 「〈べし〉의 한국어번역에 관한 일고찰-〈べからず〉에 대한 대역어를 중심으로-」 『日本學報』 99 韓国日本学会 pp.47-59
- 이수향(2015) 「오쿠라도라이키라본교겐(大蔵虎明本狂言)의 추량표현에 관한 고찰」 『比較日本学』 34 漢陽大學校 日本學國際研究所 pp.419-434
- \_\_\_\_\_ (2017) 「중세후기자료에 나타나는 추량조동사(べし)의 사용양상」 『比較日本学』 40 日本國際比較研究所 pp.357-374
- \_\_\_\_\_ (2019) 「狂言자료에 나타나는 추량조동사「べし」에 관한 고찰-大蔵虎明本과 天理本の 비교를 통하여-」 『일본어교육연구』 48 한국일어교육학회 pp.161-174
- 李淑姬(2006) 「虎明本狂言集における「うと思う」の用法-推量・意志の助動詞「う」との比較-」 『日本學報』 68 韓国日本學會 pp.55-68
- 石田肇(1966) 「助動詞〈べし〉の考察」 『滋賀大國文』 4号 滋賀大國文會 pp.39-64
- 北原保雄(2001) 『日本国語大辞典』 小學館 pp.1223-1224
- 此島正年(1973) 『国語助動詞の研究 体系と歴史』 桜楓社 pp.334-335
- 近藤泰弘(1973) 「推量表現の変遷」 『言語』 22-2 大修館 pp.48-60
- 高山善行(2002) 『日本語モダリティの史的研究』 ひつじ書房 pp.193-238
- 桜井光昭(1969) 『古典語・現代語助詞助動詞詳説』 学灯社 p.213
- 永井 猛(1994) 「天理本狂言六義のこと」 『中世の文学』 附録 三弥井書店 p.1
- 蜂谷清人(1971) 「助動詞『う』『うず』『うずる』の語形・用法に関する一考察-狂言古本を中心に-」

『国語学』 86 国語学会 pp.7-19

堀口和吉(1979) 「助動詞の意味-"べし"をめぐって-」 『国文学研究誌』 23 天理大学国語国文学会  
pp.22-36

森田良行(2007) 『助詞・助動詞の辞典』 東京堂出版 pp.132-135

山口明徳・秋本守英編(2001) 『日本語文法大辞典』 明治書院 p.710

山口堯二(2018) 「〈べし〉の通時的変化」 『京都語文』 4 佛教大学国語国文学会 pp.186-205

〈텍스트〉

北原保雄 외(1991) 『狂言六義全注』 勉強社

## 〈 要 旨 〉

## 『天理本狂言六義』における推量表現

- 助動詞「べし」を中心に -

本稿は「べし」の変遷過程を把握するための資料として、中世後期口語資料である『天理本狂言六義』に表れた「べし」の使用様相を、活用形と意味用法の観点から考察したものである。考察結果をまとめると次の三点となる。

第一に、活用形は、終止形「べし」が最も多く、連体形「べき」、未然形「べから」の順に表れた。連用形「べく」と已然形「べけれ」はほとんど表れなかった。後代になるにつれ「べし」は使用頻度が低くなり、「べく」と「べき」の使用が増加するのは興味深い現象といえるだろう。特に「べき」の使用が増加する理由は中世後期から表れはじめる〈終止・連体形の合一化〉現象による結果であろうと推測できる。本稿の調査結果でも「べき」が「べし」の代わりに終止形に使われた例が2例発見された。今後「べき」の終止形と連体形の使用様相に関する追加資料の分析を通じ、どの時期から「べき」の使用が増加するかについて詳細に考察したい。

第二に、意味用法については、[適當・勸誘・命令]-[推量]-[当然・必然]-[意志]-[可能]-[禁止]の順に表れた。[適當・勸誘・命令]の意味が多く使われている理由は、対話文と地の文の区別が明確でなく、全体的な筋書きの中で登場人物の動作や舞台演出を指示する形式になっている台本の性格に起因すると判断される。

最後に、[禁止]の意味用法は「べからず」においてのみ表れた。「べからず」の他の意味用法は中世以降徐々に衰退し、[禁止]の用法に限定され、現代日本語に継承されてきたと推測できる。

論文分野：日本語史

キーワード：推量助動詞、中世後期、天理本狂言六義、活用形、意味用法

## ■ 이수향(李粹曷)

가천대학교 조교수

suhyang1022@naver.com

■投稿日	：	2020년	1월	16일
■審査開始	：	2020년	2월	5일
■審査完了	：	2020년	2월	19일
■掲載確定	：	2020년	2월	28일